벤처 1세대 신화

HUMAX와 Ahn 안철수연구소

코스닥 시장은 한때 '한국경제의 미래'로 불렸다. 필자가 취재하던 코스닥증권시장의 최고경영자(CEO)였던 강정호 사장, 신호주 사장 등은 당시 필자를 볼 때마다 코스닥시장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소속 기업들에 대한 자랑을 침이 마르게 늘어놓곤 했다.

코스닥시장이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것은 벤처열풍이 불면서 정보기술(IT)업체들이 각광을 받을 때 한국의 대표적인 벤처기업들이 포진해 한국경제의 미래를 담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의 거품이 빠지면서 무수한 기업들이 사라졌다. 한때 코스닥증권시장과 한국벤처업계의 대표주자였던 많은 기업들이 퇴락했거나, 최고 스타로 각광받았던 이들이 분식회계 등으로 아직도 수의를 입고 복역하는 안타까움이 시장 뒤편에 서려있다.

과거의 화려한 위용을 생각하면 요즘 코스닥시장은 폐허의 들판에서 쇠락한 갈대들의 스산함을 목도하는 듯한 느낌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꿋꿋하게 벤처 1세대 기업으로 코스닥시장을 지키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휴맥스와 안철수연구소다.

휴맥스는 지난 1989년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 박사 과정생이었던 변대규 대표가 그의 대학원 동료 · 후배 6명과 함께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서울 봉천동 낙성대 입구 뒤 조그만 사무실을 마련, '건인시스템'이란 이름으로 회사를 차리면서 세상에 선을 보였다. 이제는 임직원 650여 명에 연매출 7천억 원, 자산 6천억 원, 시가총액 6천억 원대의 대형 기업으로 성장했다. '코스닥의 삼성전자'라 불리는 휴맥스는 위성 셋톱박스 분야 세계 2위의 자랑스런 기업이고, 지난 2003년부터는 디지털TV 시장에도 뛰어들면서 '디지털 가전' 기업을 표방하고 있다.

미국에만 두 곳을 포함해 영국, 일본, 두바이, 프랑크푸르트 등 전세계 12개 국에 마케팅 법인이 있고, 생산거점도 중국에 두 곳과 폴란드, 인도 등 경기도 용인 라인을 포함, 총 6개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연구개발(R&D) 센터는 분당 본사 외에 폴란드 바르샤바에도 있어 국내 제조벤처 1세대로서 세계벤처업계에 당당하게 명함을 내밀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분당에 지하 6층, 지상 12층짜리 첨단 인텔리빌딩 사옥을 신축했고, 조만간 대망의 '매출 1조 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코스닥시장의 핵심기업으로 당당한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안철수연구소도 마찬가지다. 1995년 서초동 뒷골목에서 3명으로

글_ 김홍국(뷰스앤뉴스 경제부장)

시작한 주식회사 안철수연구소는 존재의미를 '사회에 대한 기여'로 잡고 정직과 성실로 승부했고, 1999년 국내 보안업계 최초로 매출 100억 원대를 넘기는 신화를 기록했다. 2000년에는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회사에서 통합보안회사로, 국내 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는 변화와 도전을 겪었고, 중국과 일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외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발전을 거듭했다.

매출액 20% 이상의 연구개발비 투자와 300여 명의 전문개발인력, 10여 년간 누적된 바이러스 관련 DB보유 등을 통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구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2010년까지 세계 10대 보안전문기업을 목표로 하면서 한국 보안업체의 자존심으로 불리고 있다.

취재 현장에서 이 두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했던 핵심 성공원리는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 성공원리는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는 도전정신이다. 시도해서 실패하더라도 그건 자기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런 실패를 통해 자신과 조직을 단련하는 도전정신 가득찬 조직문화가 결국 강인한 생명력을 만들어 냈다는 특성을 두 기업은 갖고 있다.

휴맥스는 개방형 셋톱 박스 시장에서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며 글로벌한 벤처 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창업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창업 이후 5년 동안은 공장 자동화 관련 용역 사업, 산업용 비전 시스템, 비디오 신호처리보드 등을 수주하면서 많은 시행 착오가 있었다.

그러나, 그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이 아날로그 기술에 기반한 가전산업에 결합될 때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디지털 가전 부문을 사업 분야로 정하고 매진한 것이 결국 성공을 불러왔다. 물론 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가요 반주기를 사업화 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비디오 CD 플레이어는 실패하는 등 굴곡은 계속됐다. 그러나 휴맥스는 이 과정에서 가전 유통에 대한 이해와 가전제품 생산에 대한 지식을 축적했고, 결국 디지털 위성 셋톱 박스 개발 이후 다양한 사업 경험을 통해 습득한 가전 유통과 생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세계적인 경영혁신 전문가인 톰 피터스가 강조한 '실행 지향의 행동 철학(A Bias for Action)'이 바로 성공을 부른 열쇠였던 셈이다.

안철수연구소 역시 20대에 의학박사와 의대교수에 올라 당연히 의사가 될 운명이었던 안철수 전 대표가 서른 두 살 때였던 1994년 '의사가 될 것인가, 컴퓨터 바이러스 퇴치의 길을 걸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다 선택한 도전정신이 오늘의 안철수연구소를 만들었다.

그가 주변의 예상을 깨고 남들이 가지 않은 불모지를 골랐던 순간의 선택이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러스 업체인 안철수연구소를 만들었고, 글로벌 바이러스업체로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둘째 성공원리는 두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진지하고 성실함이 가득하면서도 글로벌화와 디지털화된 비전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취재현장에서 만난 변대규 대표는 언제나 성실과 진지함으로 가득차 있었고, 지금은 CEO에서 물러나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EMBA(Executive MBA)과정을 밟고있는 안철수 전 대표도 마찬가지였다.

항상 노력하는 경영자의 면모를 보여왔던 변대규 대표는 어제와 오늘 이룬 휴맥스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외부 컨설팅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질적인 변화를 통해 내부혁신을 이루겠다며 HW설계와 구매, 생산방식, 물류 등 모든 분야를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세계석학들이 모이는 자리는 빠지지 않고 참석해 세계기업의 조류와 비전을 배우는 학구열과 성실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스스로 CEO직에서 물러나 와튼스쿨을 다니면서, '기업가 정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세계 최첨단 · 최정상의 흐름을 배우는데 열중하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도 마찬가지다. 최근 한국을 찾아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탈권위화이며, 웹 2.0 개념도 결국은 탈권위주의라는 거대한 사회의 변화, 기술측면에서 바라본 흐름이다. 탈권위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라고 강조하는 등 세상 변화에 항상 앞서가려고 노력하는 진지한 모습은 변화하는 세상을 예지력 있게 바라보는 비전 있는 경영자의 전형으로 꼽을 만하다.

중국의 전략가 손자는 손자병법 계편(計篇)에서 '내가 이와 같은 견해로써 관찰하건대, 승부는 저절로 나타나는 것(吾以此觀之, 勝負見矣)'이라고 했다. 장수인 경영자의 자질과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고루 갖추며 성공가도를 질주하고 있는 두 기업이 손자의 표현대로 '스스로 승리를 그대로 드러내며' 코스닥시장을 고고하게 지키는 한편 한국 정보기술(IT)의 자존심을 곧추 세우고 있다. 그 기세 오십년, 백년 넘게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